“총무원장 선거제, 통합적 논의하자”

조계종 직선제 특위, 선거대안 마련 초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 방안인 직선제와 염화미소법 등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위원장 덕조, 이하 직선제 특위)는 2월 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직선제뿐만 아니라 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선제 특위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특위 위원 현민 스님은 “직선제 논의에 대한 종도들의 기대 심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만 대중에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광 스님도 “현재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직선제뿐만 아니라 염화미소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위를 발전적 해체하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 문제와 대안을 논의 ·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법안 이월을 이유로 특위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을 올해 반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특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직선제, 염화미소법, 간선제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염화미소법을 발의한 특위와도 연석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수덕사, 정혜사 소유권 말소 이행하라”

高法, 부제소합의 불인정… 수덕사 “대법 상고”

수덕사의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덕사 측이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월 3일 정혜사(분원장 법인, 선학원 이사장)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항소심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수덕사 측에서 이의신청했다.

법원은 선학원 측이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학원이 임명한 석청 스님은 정혜사 토지가 수덕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2015년 수덕사 측과 작성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해 석청 스님이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수덕사 역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고법 판결에 1심서 승소했던 수덕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수덕사 관계자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어서 황당하다.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은퇴출가 제도 마련 공청회 열린다

2월 15일 출가제도특위 주최

출가자 감소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퇴출가에 대한 의미와 은퇴출가자의 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월 1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은퇴출가 제도의 의의 및 은퇴출가자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은퇴자 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을 주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이 나선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톨릭, 학문 통한 교류 나선다

동국대 · 안젤리쿰대, 2월 7일 MOU 체결





스테판 주릭 안젤리쿰대 신학대학장 등 안젤리쿰대학 관계자들은 동국대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사진 왼쪽은 협약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합장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2월 7일 열린 동국대와의 협약 체결 모습.

불교와 가톨릭 종립대학이 비교 종교 연구와 종교간 대화를 위한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안젤리쿰대학은 2월 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안젤리쿰대학 스테판 주릭 신학대학장, 미켈 푸스 신부 등과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와 안젤리쿰대학은 불교와 가톨릭 종교 간 비교연구를 발전시키고, 활발한 대화와 교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과 안젤리쿰 신학대학 교원 · 연구원 간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 동국대 국제 여름 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종교 간 대화 강좌 개설 및 학생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불교와 가톨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두 대학이 학생과 교원 등의 학술 교류를 위한 협정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두 대학이 협력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종교 간 교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우수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 연구원 학술 교류 본격화
올 여름 ‘종교 대화’ 강좌 개설
불교 · 가톨릭 비교 연구도 추진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두 대학과 두 종교의 화합과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주릭 안젤리쿰대학 신학대학장은 “오늘 두 대학의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통해 연구 교류와 정기적 회의 · 심포지엄 · 논문 정보 공유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학문적 교류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릭 학장은 조계종 예방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서도 “불교를 비롯한 여러 동양종교에 대한 연구 폭을 넓히려 한다. 따라서 동국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갈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업무협약 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미켈 푸스 신부의 “가톨릭 교회와 불교 간 대화 : 평화를 위한 대화의 방식과 태도” 특강이 이어졌다.

푸스 신부는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때문에 타인이 믿는 종교의 가치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종교 간 대화의 근원은 인간이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인류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젤리쿰대학 관계자들은 6일 조계종을 예방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8~9일 이틀간 해인사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불국사, 석굴암 등을 방문했다.

한편 안젤리쿰대학은 1222년 도미니칸회 신부들이 건립한 교황청 종립대학으로 가톨릭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전 세계 150여 명의 가톨릭 최고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5명이 가톨릭 성인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차GBC’ 관련 뇌물수수 의혹 수사 촉구

봉은사대책위, 2월 3일 특검에 입장문 전달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고삐를 바짝 당긴 가운데 조계종이 ‘현대자동차 신사옥 조기착공 지원 대가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재차 수사를 촉구했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원명, 봉은사 주지)는 2월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원명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과 신도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과 이원표 신도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특검 사무실을 방문,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서 “최순실 재단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200억 원 헌납이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조기착공 대가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가성 뇌물수수를 통한 재벌특혜의 전형으로 진행되는 현대차 신사옥 초고층 개발은 졸속행정 아래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전부지가 봉은사에 환수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배경에는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비리가 있다. 2013년 6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만난 이후 2014년 9월 감정평가금액이 3조3천억 원이었던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10조5천억 원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으로 매입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월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초대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부지를 포함한 10만평 토지를 1970년 박정희 정권 정치자금 마련 목적으로 불법 강탈당한 점 △한전부지 원소유자로서 환매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 점 등을 내세워 특검이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봉은사대책위원장 원명 스님이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대차 GBC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다르다는 질문에 원명 스님은 “공정한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강남구가 2월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대자동차 신사옥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설명회에 참석해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명운동 1차 집계 결과 6~7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앞으로 전문가 분석작업을 통해 초고층 난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위 활동의 당위성 등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서는 태극기를 든 한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과 특검 해산을 촉구하며 대책위 옆에서 고성을 질러 대책위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원불교문화대학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통합적상담방법론/심리검사 및 평가/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성격심리학/집단상담Ⅰ/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학/상담심리학/발달심리학/긍정심리학/신체심리치료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불교수행과 실습/비교명상의 이해/동 · 서양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리학/명상과 치유/불교명상학/불교와 마음치료/삶과 죽음의 철학/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MBSR · 수용전념치료(ACT)/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집단상담Ⅱ/부부 및 가족상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동 · 서양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학/상담심리치료/정신병리학/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젼/뇌과학과 심리치료/삶과 죽음의 철학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 개 강 : 2017년 3월 8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특전 :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가족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